

올해의 청백리 최훈섭 · 전근숙 · 황영구 선정 어린이 맹사성 용화초 권예린외 5명 선발



왼쪽부터 청백리 ▲선비상 최훈섭 ▲스승상 전근숙
▲지킴이상 황영구

온양문화원(원장 김시겸)은 지난 9월 20일 청백리상 및 어린이 맹사성 선발 경연을 문화원 대강당에서 가졌다.

제2회 온양온천문화예술제를 기념하고 맹

정승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실시한 이번 경연에서 청백리 선비상에는 최훈섭(57·탕정초 조무원), 스승상에는 전근숙(여·52·아산북수초 교사), 지킴이상에는 황영구(54·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경위)씨가 각각 선정됐다.

▲선비상을 수상하게 된 최훈섭씨는 26년간 학교에 재직하면서 공직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팔순노모를 지극히 봉양하는 등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모범 공무원이다.

▲스승상을 수상하는 전근숙씨는 아산북수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수 및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과학정보 교육과 특기 신장지도, 효행 예절교육, 봉사활동지도 등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 교사이다.

▲지킴이상을 수상하는 황영구씨는 아산경찰서배방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민생침해사업 척결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준법풍토 조성 및 치안질서 확립에 지대한 공을 세워 수상자로 선정됐다.



▲왼쪽부터 어린이맹사성 권예린(문상), 정현우(충상), 전동민(효상), 황지선(의상), 신호은(예상), 이동한(지상)

한편 어린이 맹사성(문·충·효·의·예·지) 선발대회에서는 文상에 권예린(용화초 6), 忠상 정현우(온양온천초 6), 孝상 전동민(신화초 6), 義상 황지선(아산북수초 6), 禮상 신호은(중앙초 6), 智상에 이동한(배방초 5)군이 각각 선발됐다.

청백리에 선발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순금으로 제작한 행운의 열쇠가 주어졌으며, 어린이맹사성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0만원을 각각 시상했다. 시상은 10월 2일 신정호국민관광단지에서 개최한 제2회 온양온천문화예술제에서 가졌다.

※ 청백리 상 및 어린이 맹사성 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산우체국 ‘고객의 날’ 운영



지난 10월 9일 아산우체국 고객의 날 운영 행사에 김시겸 온양문화원장이 일일 우체국장으로 위촉돼 고객 민원 안내 업무를 실시했다.

아산우체국은 고품질 우정,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현코자 고객의 날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우체국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민원안내와 각종 체험행사에 대한 안내를 맡았다.

이날 우체국에서는 방문한 고객들에게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부모와 함께 방문한 어린이에게는 선물과 풍선 불어주기 등을 실시하고 순번대기표에 의한 잠깐이 벤트 및 연일차 시음회 등을 실시했다.

용화중 김인수 “맹정승 골든벨 울렸다”

10월 문화의 달을 기념하고 제2회 온양온천문화예술제를 축하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일 신정호국민관광단지 야외 음악당에서 개최한 “맹정승 골든벨을 울려라” 최후의 1인으로 김인수(사진·용화중 2)학생이 선정됐다.



‘맹정승 골든벨을 울려라’는 관내 중학생 200여명이 참석하여 맹사성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 최종 1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